



# 2014 『내가 한국바로알리기의 주인공』 에세이 & UCC 공모

구분	소재	세부 내용
에세이 부문	외국에서 보는 한국 이미지	- 외국자료(외국 교과서 포함)에 나타난 한국이미지 - 외국에서의 한국이미지 제고 방안
	한국이해자료 활용	- 한국이해자료의 활용 후기 - 한국이해자료 개발에 대한 제안
UCC 부문	한국바로알리기	- 해외에 한국을 바로 알릴 수 있는 한국의 역사·문화관련 창작 동영상 제작



## 한국을 외국인들에게 알리기 위한 제안

우리 학교에는 많은 중국인 학생이 있다. 보통의 경우 교환학생의 신분으로 한국에 온다. 그들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어떤 거부감도 없다. 내가 만나 본 중국학생들의 경우 한국 문화에 많은 관심을 드러냈다. 한국 음식과 한국 대중문화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으며 그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한국어를 공부하게 된 이유 역시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텔레비전 드라마를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에 관심이 생겼으며 여행을 통해 그 관심은 호감으로 바뀌었다. 열정적인 사람은 한국어 공부를 하고 이십대의 젊은 학생들은 교환학생이라는 제도를 통해 많이 한국으로 몰려들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경우 한국 음식과 대중문화 외에는 한국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정치와 사회 문제는 그들의 관심 대상도 아니며 자국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텔레비전을 통해서 한국 음식과 한국 대중문화에 호감을 가진 외국인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 호감에서 끝나지 않고 한국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우리는 다양한 제도를 통하여 외국인에게 많은 체험과 학습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한국에서 공부하는 많은 학생들은 학교와 기숙사 그리고 학교 근처 식당 외에는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아는 사람도 없으며 무엇보다 금전적인 이유가 가장 클 것이라고 생각 한다. 다른 나라에 와서 몇 년 동안 학교 주변 외에는 가 본 적이 없다면 얼마나 우울할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외국인 학생을 위해 예산을 만들어야 한다.

외국인 학생의 경우 자국 학생보다 더 많은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내고 학교에 다닌다. 이런 그들에게 외국인 학생 혜택을 주는 것은 어떨까? 한국에 있는 동안 싼 가격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를 지급한다. 한 달에 두 번 학교 밖의 다른 곳에 간다. 여기에는 한국인 학생이 인솔교사가 되어 그들과 함께 한다. 한국인 학생에게는 봉사활동 시간을 제공한다. 그들은 전통시장, 향교나 서원, 지역축제와 문화유적지를 주로 찾아간다. 이 체험학습은 약간의 강제성이 필요하다. 적극적인 성격을 가진 학생의 경우 이런 체험학습을 통하지 않고도 많은 사람을 사귄다. 그러나 내성적인 학생의 경우는 다르다. 학생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강제적인 활동을 한다. 스탬프 카드를 만들어서 도장을 찍고 모두 참여 한 학생에게는 한복 선물이 주어진다. 처음에는 학생들의 참여도가 적을 것이다. 그러나, 한복을 받은 학생이 늘어날수록 많은 외국인 학생이 스탬프 카드를 받기 위해서 노력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외국인 학생을 자국 학생처럼 관리해주는 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넉넉한 인심과 따뜻한 정이 넘치는 한국사람 특유의 천성을 긍정적으로 활용한다면 외국인 학생이 더 많아질 것이다. 또한 한국에 대한 이미지도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의 경우 제주도에서 살았던 적이 있다. 제주의 경우 국내 관광객뿐만 아니라 외국 관광객도 아주 많이 찾아오는 국제 도시 이다. 일본인과 중국인이 많이 찾아오는데 그들은 제주를 제대로 보고, 듣고, 즐길 수 없었다. 유명한 관광지에도 우르르 몰려가서 사진을 찍고 회를 먹는다. 다닥다닥 버스에 타고 박물관에 가서 가이드의 어설픈 설명을 듣고 몸에 좋다는 건강식품을 구입 한다. 화장품 가게가 즐비한 곳에는 항상 시끄럽다. 곳곳에서 중국어와 일본어가 들리고 점원은 한 제품이라도 더 팔고자 야단이다. 서울 명동의 모습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 같다.

제주에 온 관광객들은 마땅히 할 것이 없다. 돌고래 쇼를 보는 것도 재미가 없고 꼭 먹어야 한다는 쇠뿔치기를 먹어도 커다란 감흥이 없다. 단지 쇼핑과 식도락을 위해서 제주에 온 것 같은 느낌 뿐이다. 거기다 비싼 가격에 제품을 구입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그들은 두 번 다시 제주에 오지 않을 것이다.

또한, 친구와 함께 조출하게 찾아오는 관광객도 많다. 이들의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기차가 없는 제주는 버스와 택시뿐이다. 운 좋게 마음 좋은 기사아저씨를 만난다면 좋은 가격에 제주를 둘러 볼 수 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는 비싼 택시 요금 때문에 만족스럽지 못한 인상만을 남기고 돌아 갈다.

추천해준 올레길은 힘들기만 하다. 관광객에게 어떠한 설명도 없이 올레길을 걸으라고만 하니 그들은 왜 이 길을 가야 하는지 알 수 없다. 웅한 올레길은 마음씨 좋은 한국인 아저씨 아주머니 때문에 생기가 돈다. 가이드와 택시기사를 대신하여 관광객에게 올레길을 설명해준다. 가격이 싸고 맛있는 식당도 넌지시 알려 준다. 이들은 두 번 다시 제주에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 했지만 여유가 된다면 내년에도 다시 올 것이라고 다짐 한다.

쇼핑과 식도락은 관광객에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그 지역을 제대로 느끼고 싶을 뿐이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지역 사람들의 이야기가 필요하다. 딱딱한 가이드의 설명보다 마을 주민이 가이드가 되어 소탈하게 설명을 제공하는 것은 어떨까? 자로 켜 듯한 교육이 아니라 약간의 말하기 훈련 제도를 실시하여 관광객에서 편안하게 다니다면 그들은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노벨 문학상 발표 하는 기간에 한국은 항상 기대를 한다. 고은 시인이 수상 후보에 계속 오르고 있지만 아직까지 수상을 한 적이 없다. 그의 작품이 훌륭하지 않아서 수상을 못한 것일까? 아니다. 그의 작품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해도 될 만큼 훌륭하고 가치 있다. 매번 안타깝게도 수상의 기회를 주지 않으니 우리로서는 답답할 뿐이다. 하지만 이것을 다르게 생각해 보자. 많은 사람들이 한글은 과학적이고 아름다운 언어라고 감탄한다. 그 아름다움에 취해 한국어 공부에 도전 하지만 알파벳을 쓰는 사람들의 경우 끊임없이 좌절 하고 중도 포기 한다.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 문학의 경우 외국인 공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비슷한 문화권의 일본인과 중국인은 있지만 서양인의 경우는 거의 드물다. 왜냐하면 외국인 입장에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국 문학의 경우는 민족적인 정서를 바탕으로 한 문학이 압도적으로 많다. 일제강점기와 광복을 겪으면서 그 정서를 고스란히 문학에 압축시켜 놓았다. 그렇다고 하여 사랑이야기와 복수이야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춘향전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청춘남녀의 사랑이야기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춘향전의 모든 것을 설명 할 수 없다. 춘향이 그네 타는 장면을 묘사하는 경우 외국인이 이해 할 수 없다. 그야말로 한국적인 정서가 듬뿍 담긴 한국인만을 위한 문학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인만을 위한 문학이 아닌 세계인 모두를 위한 한국 문학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국 문학에 관심을 가진 재능 있는 인재를 넉넉한 지원을 통해서 교육 시켜야 한다. 많은 예산이 필요한 일이다. 불필요한 일이 아니라 꼭 해야 할 일이기때 꾸준히 투자하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 한다. 대학에서도 외국인 전문가가 한국 문학 강의를 한다면 이것 역시 새롭고 다양한 관점으로 한국문학을 해석 할 수 있을 것이다. 문학이라는 것은 음악과는 다르다. 음악의 경우 언어는 달라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좋은 음악은 눈이 보이지 않아도 말을 할 수 없어도 들을 수 있다. 반면에 문학은 언어를 알지 못하고는 절대로 이해 할 수 없다. 다른 언어에 비해 민족 정서가 그대로 내포되어 있는 한글의 경우는 더 그렇다. 한글에 대한 관심이 한국 문학으로 까지 이어지기를 바란다. 그들이 우리 작품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속상해 하지 말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이 노력은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화려하게 꽃피울 것이다. 많은 한국 문학작품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을 것이다. 또한 이것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도 알려지게 될 것이다.

한국을 알리는 것을 너무 거창하게 시행 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이라고 생각 한다. 텔레비전을 통해서 많은 나라에게 한류가 알려 졌다. 드라마와 영화 가수를 통해서 그들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갖고 한국 여행을 온다. '대장금'을 통해서 한국 음식에 관심을 갖고 멀리서도 한국음식을 먹어보고자 주문 한다. '별에서 온 그대'를 통해 중국은 치맥 열풍이 휘몰아치고 있다. 이들은 자연스럽게 대중문화를 통해서 한국을 알고 있다. 이것은 그 어떤 제도나 정책 보다 효과가 높다. 거부감 없이 그대로 스며들기 때문이다. 대중문화 종사자들이 문화외교를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 좋은 대중문화를 앞세워 한국을 알리고자 해도 제도와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외국인에게 한국은 그저 독도문제와 위안부 문제를 가진 아픈 나라로만 생각 할 것이다. 나는 이것이 마음이 아프다. 문화외교와 함께 좋은 제도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 모두가 한 마음 되어 국가대표로서 올바른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